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심리 인권적 접근보다 사법적 원칙 따를 듯

정계 인사들의 잇따른 지지 선언, 대기업들의 전폭적 지지, 이미 과반을 훌쩍 넘은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손을 들 가능성은 의외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소위 21세기 최고의 인권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지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구두 변론의 절대적 시간을 주(states)의 권리와 사법부의 권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은 도덕적·인권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기보다 사법적 원칙만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거해 현재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단 프로포지션8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곧 프로포지션8의 폐지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 판시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면서 안 좋은 소식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

법화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타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약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는 물론 있을 것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가장 공을 들인 연방결혼보호법 폐지 역시 주 법에 맡겨질 공산이 크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이 그렇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지 결혼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왜 그 정의를 바꾸려 하는가.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인가”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결혼보호법 폐지를 통해 전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도출해 내려던 동성결혼 지지자 입장에서 썩 반가운 일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중 진보적 인사들이 여전히 이에 대해 인권적·평등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시민의 평등권에 어긋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한쪽은 완전한 결혼, 다른 쪽은 탈지분유 같은 결혼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김준형 기자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 남가주 일원 9개 교계단체가 31일 새벽 부활주일을 맞아 일제히 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선포했다. 사진은 이날 새벽 5시 30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주최 하에 로스앤젤스 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드려진 LA지역 예배 모습.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ISSUE

생명력 넘치는 부활절 후... 자살과 안락사를 생각한다

우리는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는가?

죽음을 논리적으로만 보면
 자살에도 일면 긍정의 요소가?

올해도 어김없이 40여일간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사회 한쪽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지만, '마음의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거나(자살) '육신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어줄 것을 요구하고(안락사) 있는 것. 부활절을 맞아, 다시 사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누리시 못하게 하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 되짚어보자.

'아이비리그(Ivy League) 3대 명강'으로 알려지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셸리 케이건(Shelly Kagan) 예일대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Death)>. 믿음과 영혼 등 '종교적 권

위에 의존하는 증거나 주장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소위 '논리와 이성'으로만 죽음과 영혼, 그리고 자살과 안락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한다. 케 이건은 '사후 세계도, 영혼도 없다'는 전제로 논의를 풀어나간다. 한 마디로 '죽으면 끝'이라는 입장.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심오한 철학적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그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 이 질문은 착각에 불과하다. 죽은 다음에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삶이 끝난 상태에서 삶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혼'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논지를 펼친다. 일단 영혼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므로 오감(五感)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내적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감각들과 여러 생각 또는 느낌들이 영혼 자체는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원론자'들은 그 근거로 '육체가 합목적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어떤 외부 존재가 미리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죽음은 나쁜 것일까? 케 이건은 "죽음이 끝이라 믿는다면,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없다"며 "내가 없는데, 대체 무엇이 내게 나쁠 수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죽음이 나쁜 건,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에게다.

→ 2면에 계속
 이대웅 기자

◆ 2013 부활절 축사 ◆

부활의 감격과 기쁨!



진유철 목사

할렐루야!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남가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와 죄의 삯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며 삶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님을 알려주셨으니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유철 목사

→ 3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부활절 이후 다시 생각해 보는 삶의 질과 안락사, 기독교적 윤리의 관점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사랑 하는 사람을 잊어간다.” 그렇다고 죽 지 않는 것, ‘영생’도 반드시 좋은 것 일 수 없다.

결국 죽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는 ‘추구할 만한 가치 가 있는 삶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이 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 인 이유일 뿐 ‘유일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 즉 ‘죽음 의 필연성’은 대단히 슬픈 것이지만, 오히려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 얼마 나 살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누구 도 모르는 ‘죽음의 가변성, 편재성’도 마찬가지다.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 는 ‘박탈’ 때문이므로, 살아있다는 사 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 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 은 축복을 누리려 하는데, 목표가 너 무 높으면 그만큼 실패 위험도 높아 지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들은 성 취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현실적 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해 야 한다.

인간이 죽을 운명이라 해서 자살 이 당연한 선택 중 한 가지가 될 수 는 없지만, 도덕성과 합리적 관점에서 자살이 때로는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면 아마 그 사람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자살 시도는 합리적 이지 못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회복 가능성을 영원히 포기하는 셈 이어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신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삶이라는 선 물에 적절한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주장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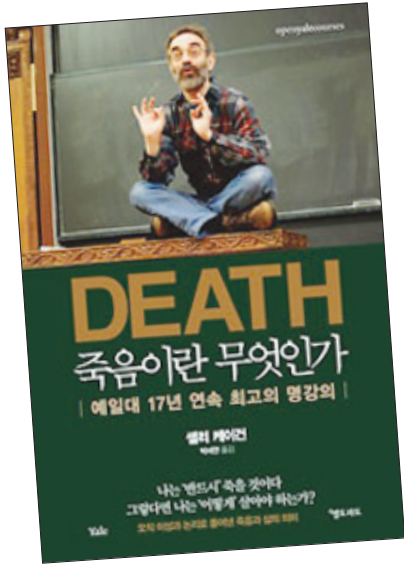
및 강연자였던 스캇 펙(1936-2005) 은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Denial of the Soul)>에서 의학적·정신질환 적 관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락사와 자살에 대한 문제들을 살핀다. 원 래 불교도였던 그는 스테디셀러 <아 직도 가야 할 길(이상 율리시즈)> 집

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가 고통에 못 이겨 ‘안 락사(존엄사로 포장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통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다. ‘과도한’ 약물 투여로 부작용이나 중독이 유발 될까 진통제를 주저하는 것은 ‘의료

로 여기고 이야기를 해 나간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부정”이 확산 되는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본 것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 부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늘 연 결돼 있다고 느껴왔고, 이를 “하나님 이 내 삶의 이면에 숨어 이 모든 것



안락사 논의하기 전 ‘과도한 조치’ 문제 해결이 먼저

죽을 때 겪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

스캇 펙이 바라보는 안락사란 아주 세속적인 현상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각

특력이 없다. 케이건은 이처럼 ‘그만 의 방식’으로 삶을 긍정하고 자살에 반대한다.

그의 결론은 이러하다. “우리는 누 구나 죽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죽 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 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마지막에 와서,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점잖은 느낌이다.

이에 반해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필 이후 기독교인이 됐고, 경험적으 로 ‘영혼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에 서 글을 썼다.

펙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안락사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 아닌, 다 른 문제점을 제기한다. ‘과도한 조치’ 에 대한 것이다.

그는 분명히 불치병 말기 환자의 수명을 늘리려 의료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체로 반대하

범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맞을 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리라는 두려움을 갖고, 안락사를 고려한다고 펙은 말한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과정이 오 로지 공포스럽고 길며 쓸데없이 고통 스텝다면, 그 전에 스스로 죽음에 이 르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병원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되지 못하면서 늘어 나는 곳이 ‘호스피스’로, 여기서는 치 료보다 ‘적절한 통증 완화’에 중점을 뒀 환자도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더 복잡한 문제는 고통의 실체가 없는 ‘정서적(심리적) 고통’이다. 이 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펙은 ‘인 간의 조건’이란 “종종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 를 존재로 살아감을 인식하는 것”이 라는 말로 대신한다. 우리 의지가 외 부 세계의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우 리는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싸 움을 경험하는 ‘사회화’ 가운데 일어 나는 복잡한 일인 것이다. 그 싸움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려 할 때 ‘안락사’ 문제가 제기된다.

이밖에 살인과 자살, 자연사에 대해 검토한 후, 스캇 펙은 안락사를 아주 ‘세속적인 현상’이라 진단한다. 그리 고 자살도 큰 틀에서 안락사의 범주

너머에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고 생 각”했다. 그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 각한 나머지 그 ‘영혼의 문제에 거의 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이 었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세속 주의자들은 영혼을 부정하고 있다. 영 혼이 곧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는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기르시는, 고유하며 발전적인 영원 한 인간 정신’이라 정의(定義)내린 다. 이 정의에서, 안락사와 자살의 문 제점이 나타난다. “나는 자살하는 사 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는지 를,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 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 럼에도 나는 자살 대부분을 죄로 간 주하며, 특히 교만의 죄로 여긴다. 그 들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내 삶은 내 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내 삶 의 창조자니까 나 자신을 파괴할 권 리가 있어’ 라고 말한다. 이것은 대단 한 교만이다.”

그는 덧붙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의 창조자가 아니다. 내가 한 송이 장 미나 아이리스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 또한 창조할 수 없다. 꽃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지만, 꽃을 만들 어낼 수는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양육 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창 조자도 아닐 뿐더러 나 자신의 소유 물도 아니다. 나의 부모, 문화와 함께 하나님을 나를 창조한 것이다.”



한 교회에서 이웃들과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모습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featuring a woman's portrait and text about acupuncture services.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s, featuring a car image and a salesperson's portrait.

Large advertisement for a church event featuring Pastor Kim In-tae, with text about evangelism and event details.

안락사 대응보다, 영혼의 성장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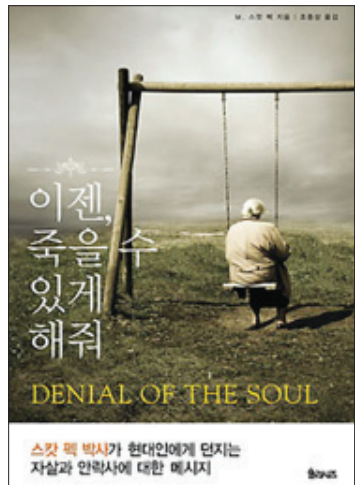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201일간 살다 간 김도 씨의 지난 2010년 장례 모습

그리고 그 영혼은 학습과 배움에 의해 성장하는 존재다. 하지만 안락사는 그 기회를 차단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 자체를 부정해버림으로써 신으로 향하는 길을 단절시킨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까지 속인다. '죽음'과 그에 이르는 과정도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는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영혼은 켈리 케이건이 부정했지만 '불멸'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자신이 죽을 시간을 선택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깔끔하게 죽겠다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거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죽음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책의 원래 제목처럼 '영혼을 부정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부정하지만,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성숙해진다. "임종시의 고백과 대화는 가능할 것 같지 않던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커다란 성장을 불러온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진실해지고 아주 빠르게 결정한다." 죽음에 이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쁨이자 특권인데, 이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도 언급했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잘 나

타나 있다. 저자는 이 글을 16년 전인 1997년 미국에서 펴냈다. 하지만 소위 '존엄사' 문제가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실행과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영혼'의 문제에서 그러하며, 심지어는 <고민하는 힘>으로 유명한 재일학자 강상중 도쿄대 교수도 '불안과 좌절을 넘어서는 생각의 힘'을 말하는 신자 <살아야 하는 이유(이상 세계)>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에 '종교', '믿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통 중인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겠지만, 스캇 펙은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다', '인생은 우리 계획과는 별도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죽이는 결정을 하기보다, 차라리 그 문제에 맞서기 위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도 덧붙인다. 그러므로 '조력 자살'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려는 극단적 변화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하지만 저자는 '안락사 논쟁' 자체가 더 뜨겁고 격렬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논의가 범

학자와 윤리학자, 의사와 간호사, 신학자와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뜨거워질수록 사회는 건설적이면서도 빠르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쉽게 공론화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전제에는 반드시, '영혼'이 있어야 한다. "영혼은 안락사보다 더 큰 주제다. 진정으로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락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는가의 여부다. 거의 모든 안락사 논쟁의 복합성은, '우리는 영혼과 영혼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회를 원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그런데 안타까운 요즘의 현실은 기독교 신앙을 외치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꾀하려고 하거나 분열의 주체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더욱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이 크다 해도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세상에 증거 할 교회와 성도의 막중하고 분명한 진리

이며 세상의 어두움과 부조리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더불어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과 지극한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8:34)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고난의 십자가는 기독교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 육신의 가짜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부활을 본 자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했으나 진실하게 도전하는 자



민경엽 목사

증인이 되어야 하며,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에게 영

생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딱딱한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면서 목청을 높여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영광스런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생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는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딱딱한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면서 목청을 높여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영광스런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전심으로 부활의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경엽 목사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필연성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고, 그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왕 노릇할 수 없는 영원한 결론을 내 려주었습니다.



이운영 목사

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권능이요 부활의 열매입니다. 죄의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절망에 가득찬 세상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었고 죄를 정복 하였으며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기쁨을 온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전 15:17)는 말씀과 같이 부활이 없었다면 죄의 속박에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속을 받은 우리는 소망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기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운영 목사

Advertisement for 'Good Morning Insurance' (굿모닝 보험)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evin Yoo.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featuring a map, contact info for Grace, and a list of courses and services.

동성결혼 합법되면 이민법에도 영향 커

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두 주제는 바로 동성결혼과 이민법 개혁이다.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이슈는 실상 관련이 있다!

만약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을 폐지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동성결혼 커플의 이민 초청, 즉 영주권 발급 및 시민권 발급이 된다. 그동안 이슬람권 이민자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망명에 성공한 케이스는 간혹 있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이민이 아니

라 인권적 망명 형식이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성애자일 경우, 사회적, 정치적 탄압이 있다는 전제 때문이었다.

현재 결혼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결혼 커플이라 하더라도 연방정부의 혜택은 누릴 수 없다. 세금, 상속, 연금의 혜택은 물론 이민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결혼보호법 자체가 동성결혼 커플의 이민 초청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1996년 하와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의회는 결혼보호법을 통과시켰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이로써 동성결혼 커플은 이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이다. 그 중 보수 성향에 포함된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전반적 성향이 보수이지만 동성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이라 사실상 보수 4, 진보 5

의 구성이 된다.

현재로서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보다는 사법부의 권한 및 소송 절차의 적합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결혼에 관한 전반적 책임과 소관을 주정부에 두고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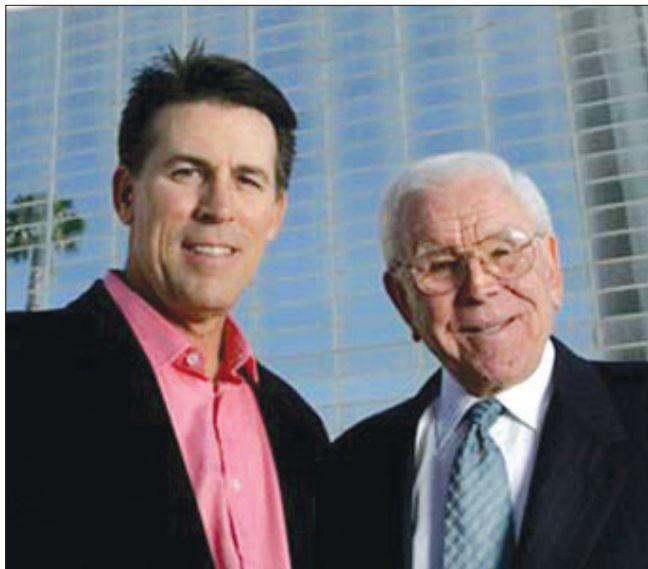
그러나 이 해석을 뒤집고 결혼보호법이 폐지돼 수정헌법 상의 평등권이 동성결혼 커플에까지 확대된다면, 미국 전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을 받게 될과 동시에 동성결혼 커플

들의 이민도 불똥이 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외에도 전세계 각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가 거세다. 1999년부터 시민간의 결합으로 동성결혼 커플을 인정하던 프랑스에서도 이젠 정식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여론이 커졌고 영국에선 아예 보수당 소속 캐머런 총리가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수정교회 전 담임 로버트 A. 쉐러 목사, 아버지 비판



로버트 H. 쉐러 목사(우)와 그의 아들 로버트 A. 쉐러 목사(좌)



수정교회의 외관과 전면이 유리로 된 벽면에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본당의 모습



아버지 로버트 H. 쉐러(Robert H. Schuller) 목사에 이어 2년 동안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Ministries) 담임을 맡았던 로버트 A. 쉐러(Robert A. Schuller) 목사가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목회적 계승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아버지가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했다면, 교회가 여

순히 이들에게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다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담임직 승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58세의 쉐러 목사는 수정교회 지역 신도들 역시 수정교회와 합병했으며, 교회 설교 방송인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 역시 이에 포함됐다고 설

포함,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지난해 5월 법원에 제출했다.

수정교회 전체 사역을 총괄하는 지도위원회 존 찰스(John Charles) 신임 회장 겸 CEO는 지난 1월 보고를 통해 "청빙 목사였던 바비 쉐러는 사역자가 6월 새로운 캠퍼스인 성 칼리

스한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람들을 본다. 이것은 그들의 인격과 전 생애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비관적인 것"이라고 대답했다.

쉐러 목사는 "아버지에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도에 내게 매우 뚜렷해졌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와 동역하려고 했다. 아버지는 프로그램을 따라오기 어려웠고 언제 일어서야 할지 알지 못했다. 2008년에 아버지는 정말 능력이 없었고,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 결정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이러한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었으나, 그는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쉐러 목사는 교회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지도위원직을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으며, 이어 교회 주요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의 모든 가족들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쉐러 목사의 딸로 직전 담임이었던 쉐라 쉐러 콜맨 목사는 10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호프 센터 오브 크라이스트(Hope Center of Christ)'란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 하나인 수정교회 본당 건물은, 그 이름처럼 온통 유리로 뒤덮인 벽면과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지난 50년간 방송되며 수많은 시청자들을 모으고 있는 주간 TV 설교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이 촬영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러나기만 했다면 교회가 여전히 사역자들에게 남았을 것"

전히 사역자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인터넷 생방송 '리더십 네트워크'에 출연해 "내가 후임 사역자 역할을 수락했을 때, 아버지는 교회의 특사가 되는 것과 기부금을 모으는 것에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에선지 교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여동생(셀라 쉐러 콜맨 목사, 수정교회 직전 담임)과 다른 사람들의 공명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마음에는 어떤 의문도 없다. 내가 적절한 권위와 모든 책임감을 부여받고, 나의 아버지가 단

명했다. 쉐러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국 사장을 맡아왔다. 지난 1월 수정교회 이사회는 로버트 H. 쉐러 목사의 손자인 바비 쉐러(Bobby Schuller) 목사를 매주 방송되는 '능력의 시간' 프로그램 인도자로 선임했으며, 이사회 투표권이 없는 회원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지난 2010년 10월 부도 신청을 냈던 수정교회는 2012년 2월에는 상징적 건물과 라초 카피스트라노 캠퍼스를 로마 가톨릭 오렌지 카운티 교구(Roman Catholic Diocese of Orange)에 팔았다. 엄청난 액수의 채무액 지불을 위해 유리벽과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 설치로 유명한 예배당을

스투스 가톨릭 교회로 이전하고, 일부 재정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급어를 받지 않는 목사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십 네트워크의 워렌 버드(Warren Bird) 박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습을 전후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쉐러 목사는 "전 리더십이 반드시 물러나야 하고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장로교 혹은 일부 장로교단이 오래 전부터 이해하고 배워왔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목사들에게, 특별히 교회 설립자에게 이는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비롯해 아버지와 비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일로-메타 글루코산 *본선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LA 통일(북한)선교대학 Unification Mission College 2013 봄학기 학생모집

LA 통일(북한)선교대학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현장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 1. 교육과정** 수업은 1년 2학기제, 1학기에 10주 북한선교 집중강의 북한선교 포럼, *통신강좌 가능(강의노트 및 강의CD발송)
- 2. 학기일정** 봄학기: 4월 11일(목) - 6월 13일(목) 10주간
1) 출석 수업: 목요일 저녁 클래스 (저녁8시-10시30분)
2) 통신 수업: 강의노트 및 강의CD 발송 / 리포트 제출
- 3. 강의장소**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목사) 그레이스룸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91765 / 909-396-4441)
- 4. 학비/특전** 한학기에 \$100 (탈북자, 조선족은 학비면제) 기타 비용은 학교 부담 수료후 북한 방문과 중국 사역현장 참관 가능
- 5. 입학/원서**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관심자면 누구나 환영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www.igm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1매, 신앙강증문(구원강증/북한선교에 대한 비전포함)
- 6. 등록문의** 구동립목사: 909)396-4441, dongripku@hotmail.com, www.igmc.org
조영길장로: 626)715-9657 / 이태실목사: 714)515-0482 / 김상우목사: 213)965-4002

LA 통일선교대학
 LA Unification Mission School
 Tel: 909.396.4441 / www.igmc.org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학장: 김지성목사, 학감: 김상우목사, 이사장: 조영길장로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 LA 통일(북한)선교대학에서 2013년 봄학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구분	일시	강의 내용	강사
1. 개강예배 / 강의	4/11(목)	(북한과 통일) "한반도 정세와 통일"	서 훈 교수 (전 국정원장자, 이대교수)
2. 강의	4/18(목)	(Biblical Perspective on NK) "성경과 북한선교"	김경환 목사 (실크로드복선 대표)
3. 강의	4/25(목)	(북한사역 현장) "평신도의 북한 선교 생활"	제롬/일리사
4. 강의	5/2(목)	(북한에 대한 각론) "김일성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	바나바 박 교수 (정치학)
5. 강의	5/9(목)	(북한선교 준비) "북한선교를 위한 영적 리더십 개발"	이광길 교수 (풀러신학교 선교학)
6. 강의	5/16(목)	(북한 여행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	신은미 교수
7. 강의	5/23(목)	(북한선교학) "북한선교의 미래와 방향"	김철용 선교사 (미주버울선교회 대표)
8. 강의	5/30(목)	(북한사역 현장)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북핵동족, 동족선교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9. 강의	6/6(목)	(교회와 북한선교) "이민교회의 실제적 북한선교"	최경욱 목사 (포경사선교회 담임)
10. 강의	6/13(목)	(시라큐스대학과 김책경제 프로젝트) "미국 정부의 대 북한정책 조명"	한중우 교수 (시라큐스대학)

교수진 김지성목사(LA 통일선교대학장), 김상우목사(통신대학장), 김대령목사(버울선교회), 김철용선교사(미주버울선교회), 박찬모총장(평안기대명예총장), 김인수총장(전 미주장신총장), 박기호교수(풀러신학교), 이광길교수(풀러신학교), 임윤택교수(필라델피아대), 양영식박사(전통일부처관), 서훈박사(전 국정원장자), 허영민박사(통일연구원북한실장), 김병로교수(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임현안교수(번성대), 배기찬교수(전 대통령경호비서관), 이우용목사(Nalec), 전영일박사(국제전략정책연구소), 안현수목사(토론토로빈슨교회), 고승희목사(이름다움교회), 안피터목사(FOC), 김정현선교사(SON미니스트리), 이석/이민성목사(모든이들선교회), 박신욱선교사(SEED선교회), 문정인목사(필라델피아대), 성현경목사(파시디나장로교회), 한중우교수(시라큐스대), 김경환목사(실크로드복선), 포경사선교회(최경욱목사), 바나바박교수, 2세 사역자, 자유북한인 등등

★ 그동안 강의하신 분들중 일부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된 마리아

요한복음 20:1~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막달라인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 이성을 잃은 채 미친 상태의 생활에 시달렸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집도 재산도 완전히 떠난 상태로 폐인의 모습 뿐이었다.

1.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일곱 귀신을 쫓아버리심

예수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 버리심으로 본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가산을 챙기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여행에 자기의 소유로 뒷받침하며 계속 섬겼다. 사탄도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음을 미리 다 알고 그를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일곱 귀신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과의 접촉을 막으려 했겠지만 사탄의 권한이란 절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일곱 귀신에게 견디기 어렵도록 온갖 고통을 겪으며 시달리면서도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못하는 막달라인 마리아를 예수께서 친히 찾아 가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 헌신, 봉사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2. 받은 은혜 보답(報答)을 위한 수은(受恩)자들의 모습

눅8:1~3에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각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실 때 악귀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치유(治癒)의 은혜 또 귀신 쫓아내심(逐邪)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병으로 죽게 되었을 것이며 또 귀신들의 알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 마귀와 함께 지옥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축사(逐邪)해 주심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 미친 상태로 재산도 전혀 상관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마귀들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찾아오신 예수께서 축사해 주심으로

정신이 회복되어 사람 구실하게 되고 또 받은 은혜 보답과 더 많은 사람들로 큰 은혜 받게 하려고 이쁨도 없이 빛도 없이 재산도 아낌없이 전도여행에 투자하며 지극정성으로 봉사했던 것이다.

헤롯의 처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의 경우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헤롯, 그의 사자와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구사의 아내 요안나가 증병에 죽어갈 때 예수께서 은혜로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했던 그들은 처지기로 맡아 관리 중인 헤롯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의 전도여행을 공급했으니 오늘날도 이 땅 위에서는 이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는 곧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그분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3.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충정(信仰忠情)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가시와 못과 창에 찔린 상처마다 피가 쏟아지고 결국 십자가 형틀의 기둥을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모친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도 로마 군병들의 창과 칼로 막아선 방비선 밖에서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신병의 위험과 죽음도 각오한 듯 창칼의 방비를 해치고 뛰어 들어가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 형틀의 기둥을 부둥켜안고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함께 해드리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던 모습을 고증에 의해 촬영된 <왕중왕>이란 영화에서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하던 각종 은혜 받았던 다른 여신도들과 함께 새 무덤에 장례 치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 집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갔다가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서둘러 수제자인 베드로와 주님의 종애를 받은 자로 자처하던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무덤에 선착했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와서 곧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요한도 비로소 따라 들어갔지만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는 두 제자는 아무런 미련도 걱정도 없는 듯 서둘러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했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으로 마리아의 신앙충정은 죽음 저편까지 영원한 사랑이었다.

옛말에 대강집 말이 죽으니까 조문객들이 문간에 장사진을 이루더니 정자 대강이 죽었을 땐 아무도 찾지 않더라는 실리추구(實利追求)의 악사 빠르고 냉정한 세속풍정(世俗風情)을 생각해볼 때 실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충정은 순수하고도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기어고 찾아 자기 집으로 모셔 가겠다는 마리아의 순수충정(純粹忠情)에 예수님께서 감동적인 감정을 더 억제하지 못하고 "마리아야" 하셨을 때 "잡오니어"하며 매달리려 했다. 예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먼저 만나 뵈는 영광을

얻었고, 그 누구 어느 제자보다도 먼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전하는 특전을 받은 것이다.

마리아야 말로 일곱 귀신에게 매여 지옥 갈 뻔 했었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일곱 귀신들을 쫓아버리신 은혜를 평생 큰 은혜로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잃었다 되찾게 된 재산을 아낌없이 전도 후원금으로 봉사하고 수제자 베드로나 사랑을 혼자 다 받은 듯 말하던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순수충정으로 사랑하여 결국 하나님 아버지 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뵈 수 있었던 영광과 그 누구 어느 제자보다도 먼저 최초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 인격과 그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드리려고 무진 애를 쓴 보람이 이같이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뵈는 영광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부활 증인된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본받으시다.

만물이 소생(蘇生)하는 새봄과 함께 다가오는 부활절을 우리 모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고 부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부활 복음의 힘 있는 증인이 됩시다. 온갖 죄악으로 찌들고 상하며 썩어 내려앉고 있는 생지옥 같은 죄악 세상에 부활 소망의 복음 확증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매진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흥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일보**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P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y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엮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예이 사랑교회, 믿음의 은사를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빗 백 변희사 그룹, 머용환 변희사 그룹, 가주 영로교회, Lahenco, Inc. 웨일리 자동차, 남가주 청년도도인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청빙광고

● 교회 소개: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올랜도제일장로교회 (http://orlandofirst.org)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2세 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M.Div 이상, 목사안수후 최소 3년 경과하신분(담임목사 경험 있으신분 우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하드카피 혹은 소프트카피):

- 자필이력서 (추천인 5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목회 비전)
- 최근 설교 두편 녹화 CD 또는 파일

● 제출처 및 방법:

▪ 우편접수처: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Orlando (청빙위원회)
140 Lake Rose Dr., Orlando, FL 32835

▪ 이메일접수처 및 전화문의처:

FirstKoreanPresby@gmail.com
716-912-0747(주인근장로), 407-592-1614(박현환집사)

▪ 제출 시한: 2013년 4월 26일 도착분

*우편제출 서류는 청빙절차 종료후 원하시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어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남가주 일원 곳곳에 울린 부활의 함성

LA, OC 등 9개 지역 부활절 새벽 일제히 예배

부활절을 맞아 남가주 일원 교회들이 일제히 새벽 5시 30분께 지역별로 지정된 교회에 모여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미주 사회를 밝혀 나갈 것을 다짐했다.

LA지역은 이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주최 하에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OC지역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주최 하에 은혜한인교회에서 각각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밖에 동부지역은 LA동부교역자협의회 주최 하에 선한청지기교회에서, 리버사이드·빅토빌지역은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주최 하에 창대교회에서, 밸리지역은 샌퍼난도밸리한인교역자협의회 주최 하에 은혜와평강교회에서, 벤츄라·옥스나드지역은 벤츄라교회협의회 주최 하에 카마리온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우



2013년 부활절을 맞아 남가주 일원 9개 지역에서 일제히 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사진은 오렌지카운티지역 연합예배가 열린 은혜한인교회 모습. 이날 설교는 남가주교회 회장 진유철 목사가 맡아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스베이지지역은 사우스베이목사회 주최 하에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세리토스지역은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주최

하에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에서, 인랜드지역은 인랜드교회협의회 주최 하에 인랜드교회 등에서 일제히 드렸다.

LA지역

LA지역 연합예배는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라는 주제로 새벽 5시 30분에 드려졌다.

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황의정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의 기도 이어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 민경엽 목사가 '부활에서 부활로!(빌3:10-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는 원영호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가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우성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가 조국

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강용순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가 이민교회의 부흥과 동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고, 양경선 목사(남가주교회 총무)의 광고에 이어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OC지역

오렌지카운티지역 연합예배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목사)를 비롯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신중은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집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드

렸다.

신중은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부활절 연합예배의 설교는 남가주교회 회장 진유철 목사는 '부활의 복음(고전 15:1-11)'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어 윤덕곤 목사(OC교회 부회장)

가 한국교회를 위해, 이호우 목사(OC교회 부회장)가 미국교회를 위해, 박재필 목사(OC목사회 부회장)가 이민교회를 위해, 송규식 목사(OC교회 부회장)가 다음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LA동부지역

LA동부교역자협의회는 이날 새벽 5시 30분 웨스트 코비나에 위치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2013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의 인도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의 기도 이어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가 '부활의 신비'(요11: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예년에 비해 교역자협의회 산하 교회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끈이어 ▷질병, 경제적 곤핍, 가정의 회복 등 성도들의 연약함 ▷동부지역의 복음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세계선교와 북한, 한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양성필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박

승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LA동부교역자협의회는 앞으로 ▷목회자 탁구대회(5월 16일)를 비롯 ▷연합찬양집회(6월 21일) ▷광복절특별연합기도회(8월 11일) ▷성탄연합성가제(12월 8일) ▷총회 및 송년모임(12월 16일) 등 다채로운 연합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세리토스지역

남가주중부교회(회장 곽소건 목사)는 지난 31일 새벽 5시 30분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석태운 목사)에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이날 곽소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황에스터 목사(부회장)의 기도 이어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들'(고전 15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상명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진정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미국과 한국, 세계평화를 위하여', '미주 한인사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다음세대인 청소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카이로스 미션 워십팀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은혜 찬만한 공연이 펼쳐졌다.

예배 후 마련된 조찬시간에는 새벽 미명에 모인 한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부활신앙으로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를 다짐했다.

한편, 남가주중부교회는 애너하임, 알테시아, 벨플라워, 부에나팍, 세리토스, 사이프레스, 놀웁, 다우니, 라하브라, 라미라다, 라팔마, 레이크우드, 로스 알라미토스, 산타페스프링스, 사우스게이트, 스탠턴, 웨스트민스터, 위티어 등 18개 지역에 140여 교회가 회원으로 있다.

인랜드지역

인랜드에서는 인랜드지역목회자연합회(회장 류수열 목사) 주최 하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의 사회로 마원철 목사(인랜드누리교회)가 기도를, 박충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요11:25-2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충길 목사는 "세월과 모든 것들이 변할 지라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2천년 전과 다르지 않다"면서 구약시대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에게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 승천한 후 재림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흥

들림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영적 회복과 한국의 안정을 위해(박해성 목사)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지역 교회를 위해(이희철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손상헌 목사(두란노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LA통일선교대학 봄학기 신입생 모집

LA통일선교대학(학장 김지성 목사)이 10주간 진행되는 봄학기 학생을 전격 모집 중에 있다. 일정은 4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글로벌선교교회 그레이스 룸에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북한의 이해, 북한선교학, 탈북자 선교, 이민교회와 북한선교 등이다.

강사로는 서훈 교수(전 국경원 차장)를 비롯 김경환 목사(실크로드커넥션 대표), 이광길 교수(풀러신학교 선교학), 김철용 선교사(미주바울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 대표), 한중우 목사(시리우스대학) 등이 나선다.

학교 한 관계자는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현장에 동참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학비는 학기당 100달러.

▶문의 (909)396-4441(구동립 목사)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찬양과 경배 25년, 그 빛과 그림자] 뿔셔뮤직 유지연 대표

“디지털 음원 골라 들으면 ‘영성의 흐름’ 느낄 수 없다”



유지연 대표가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

1997년 '동시대적 교회 음악과 하나님 나라'를 모토로 한국에서 시작된 '찬양과 경배' 운동이 어느덧 25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이를 기념해, 찬양계의 리더들과 함께 찬양의 역사와 현실을 살피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크리스천 음반사 뿔셔뮤직(fishermusic)의 유지연 대표(영어명 데이빗)는 '찬양과 경배'의 선구자다.

신형원, 김범룡, 산울림의 김창환, 길은정, 김종찬, 윤형주, 이선희 등 국내 포크와 팝 계열 수많은 유명가수들의 음반 프로듀서와 편곡,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를 맡았다. 최근에는 '힐링(Healing)'을 주제로 제작한 새 앨범 '오 할렐루야!(O Hallelujah!)'를 발표했다. 아픈 이들에게 주는 '따뜻한 수프', '알약'과 같은 앨범으로, 연령에 관계

들에게도 외면당하기 쉽다.”

-침체된 CCM을 다시 일으키려면.

“나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M'을 '메시지(message)'로 이해한다. 동시대적인 음악과 함께 동시대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메시지가 없는 음악은 멜로디일 뿐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

음반침체, 디지털의 확산과 낮은 문화수준 때문

컴필레이션 음반으로는 깊은 영적 흐름 못 느껴

CCM, 시대적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그는 80년대 두란노 '경배와찬양'의 초대 디렉터였으며, 국내 예배음악의 큰 전환을 일으킨 '전하세 예수'의 1~4집 편곡과 연주를 담당했다. '예수전도단', '주찬양', '다윗과요나단' 등의 수많은 음반들도 그의 편곡과 연주를 거쳐 갔다. 1994년 이후에는 '뿔셔뮤직'을 설립해 빈야드, 힐송, 아이함 등 전 세계 워십음악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힘써왔다. 대중음악에서도 최고의 뮤지션이

없이 이 시대 상치되고, 외롭고, 지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유지연 대표를 만나 크리스천 음반시장의 현황과 CCM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크리스천 음반시장의 침체 원인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서점에서 음반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반 음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디지털의 확산이 침체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수준'이다. 한국은 불법 복사와 다운로드가 50%를 넘는다. DVD 5장이 겨우 1만 원에 팔린다. 미국, 영국, 일본도 한때는 불법 복사와 다운로드가 확산됐던 때가 있었지만, '아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퍼져나가 단기간에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은 90% 이상이 가짜로, 배급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값을 치르고 구입하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침체기에 이 점을 각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은 90% 이상이 가짜로, 배급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값을 치르고 구입하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침체기에 이 점을 각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디지털이나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듣고 싶은 노래만 듣는 경향이 강해졌다.

“디지털로 음악 몇 곡 골라서 듣거나, 여러 유명 음악들만 모아 놓은 컴필레이션 음반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영성이다. 한 음반에는 음악과 함께 영성의 흐름이 있다. 음반을 들으면서 가수의 영성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다. 영은 영끼리 전달되는 것이다. 클래식음악인들이 대중음악인들을 알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컴필레이션 음반은 좋은 음악들을 한번에 듣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음반을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덤핑이 문제다. 음반 몇십 장을 사야 들을 수 있는 곡들을 한 장 가격에 팔기에 다른 음반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음반들은 시장 점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며, 소비자

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당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제는 외국 곡에 대한 모방을 넘어서 새로운 창작을 통해 외국에 내보낼 수 있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찬양 사역자들이 음악적 기술과 더불어 영성도 겸비해야 한다. 힐송의 달린 책(Darlene Zschech)은 매일 시편을 한 편씩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곡을 받는다고 했다. 말씀 앞에 좌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성은 결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 없다.”

-이 시대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에 '오 할렐루야!'라는 음반을 냈는데, 주제가 '힐링'이다. 세상이 많이 상해 있다. 자살이 범람한다. 좌우 갈등이 크고, 성폭행도 만연하다. 힐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아베스의 기도', '볼찌어다' 등 말씀을 가사로 한 곡들을 실었다. 하나님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앨범이다. 여러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주는 것이라고 본다.”



유지연 대표의 '오 할렐루야'

-앞으로의 계획은.

“뿔셔뮤직은 아시아의 기획사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친구들과 힘을 합쳐 아시아에서 K-CCM 열풍을 일으킬 것이다. 멋진 팀을 만들어 아시아 투어를 할 것이다. 음반은 아시아 7개국에서 모두 출시될 것이다.” 신태진 기자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랭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플러신학대 김세운 박사 초청 세미나

오는 22일, 창의와 성화 주제로

오는 4월 22, 23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운 박사(플러신학대학교 교수) 초청 세미나가 개최된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미주두란노서원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창의론의 구조와

행위에 따른 심판을 통해 완성되는 성화'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목회자, 신학생, 임직자, 평신도 리더이며, 등록비는 50불.

문의: (213) 235-1068

일본서 ‘카미(神)’ 아닌 ‘창조주(創造主)’ 번역 성서 나온다

창조주역성서간행회서 출판... 한국교회서도 지원



창조주역성서



호리코시 노부지 목사



역자 오야마 레이지 목사

일본에서 하나님을 ‘카미(神)’가 아닌 ‘창조주(創造主)’로 번역한 ‘창조주역성서’(로고스출판사)가 오는 4월 1일 첫 출판된다. 이번 창조주역성서(創造主訳聖書) 출판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이 떠올리는 ‘카미(神)’의 개념이, 성서가 가르치는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단이 됐다.

이에 2011년 2월 창조주역성서간담회가 열렸고, ‘카미(神)’와 별도로 ‘창조주(創造主)’ 번역 성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후 2년의 시간을 걸쳐 창조주역성서가 출판되게 됐다.

창조주역성서가 출판된 경위는 다른 ‘신(神)’ 개념 때문

창조주역성서 제안자 호리코시 노부지 목사(堀越暢夫, 소아이그리스도교회는) “여러분은 ‘카미(神)’라고 하면 어떤 신을 떠올리는가? 크리스천 집에서 자란 사람, 오랜 세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를 떠올린다. 그러나 신주(神主) 차남으로서 태어나 신사(神社) 안에서 자란 나에게 있어서 ‘카미(神)’는 신사의 신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창조주역성서 출판을 제안한 동기에 대해 “제가 성서를 믿고 사람들에게 신(창조주, 創造主)을 믿으면 좋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나는 신(카미, 神)을 믿고 있다. 나무에도 돌에도 신(카미, 神)은 있다. 그것을 모르는 내가 불쌍하다’라고 대답한다”면서 “상대의 신(카미, 神)을 부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창조주, 創造主)을 전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마음을 닫아 버린다. 신(창조주, 創造主)을 전하고 싶는데,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문제를 느꼈던 적은 없다. 저는 이 문제에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왜 창조주(創造主)인가

호리코시 노부지 목사는 “한국이나 중국에도 ‘신(神)’이라는 말이 예부터 있었다. 그러나 성서가 번역될 때 ‘신(神)’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한국은 ‘하나님(유일하신 분)’,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번역해 우상신과의 혼란을 피하도록 번역했다. 영어 성서에서도 God(창조주)와 god(우상신)의 사용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그리스탄 시대에 ‘데우스(데우스)’, ‘천주(天主)’로 번역됐다. 메이지 시대에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번역자는 神라고 쓰고 (シン)라고 읽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본식 후리가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카미(カミ)라고 읽고 그렇게 읽는 법이 정착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카미(神)’라고 치면 몇 개의 항목 마지막에 ‘기독교의 하나님’, ‘창조주’라고 나온다. 반대로 ‘창조주’라고 치면 ‘기독교의 신’이라고 나온다.

일반 사람들은 ‘창조주’라는 말이 ‘성경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가서 성경의 내용을 전한다는 견지를 갖고 ‘카미(神)’ 번역과는 별도로 창조주 번역이 필요하다고 오랜 기간 강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호소해 왔다. 또 저 자신도 창조주를 사용하면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실감한다”고 밝혔다.

호리코시 목사는 “2011년 2월 7일 뜻 있는 분들이 모여 창조주역성서간담회를 열었다. 거기서 창조주 번역 성경의 시비(是非)에 대해 논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2년에 걸친 심의를 통해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천지를 만드신 주를 창조주로 번역한 성서가 출판되게 됐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창조주의 사랑과 희망을 알고, 삶이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어의 충실’번역보다 ‘원문의 의미’번역 충실해야

역자(訳者)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尾山令仁)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성서가 난해한 서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문제는 번역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대도, 문화도, 풍속도 다른데 그것을 무시하고 원어를 일본어로 옮겨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미국성서협회의 번역 주임을 맡은 바 있는 유진 나이다 박사를 들어 “‘원어의 충실’보다 ‘원문의 의미에 충실’로 번역하는 것이 지금 번역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구미(歐美)에서는 벌써 이 원칙에 의해 번역된 성서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에는 현대역(現代訳)외에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새로운 원칙으로 성서를 번역해 성서를 읽은 것만으로 (성서를 쉽게) 아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일본인이 이 성서를 읽고 살아가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했다.

창조주역성서간행회 실행위는 대표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요도바시교회), 호리코시 노부지 목사(소아이그리스도교회), 하세가와 요시노부 목사(사부가와그리스도교회), 사사키 국제변호사, 이시가와 목사(동맹기독교단 성십자가교회) 등 9명의 저명한 교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소아이그리스도교회에서 사역 중인 손제현 선교사(JMF)는 “출판비용은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한국교회가 일본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열매라고 믿는다. 이 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다”며 “앞으로 이 창조주번역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99%의 일본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일본나라가 창조주를 섬기는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성현 기자

미주베델교회 목사 임직식 거행해

배기문·이재현 강도사 목사 임직 받아

미주베델교회(정요한 목사)가 17일(일) 오후 4시에 목사 임직식을 개최하고, 배기문·이재현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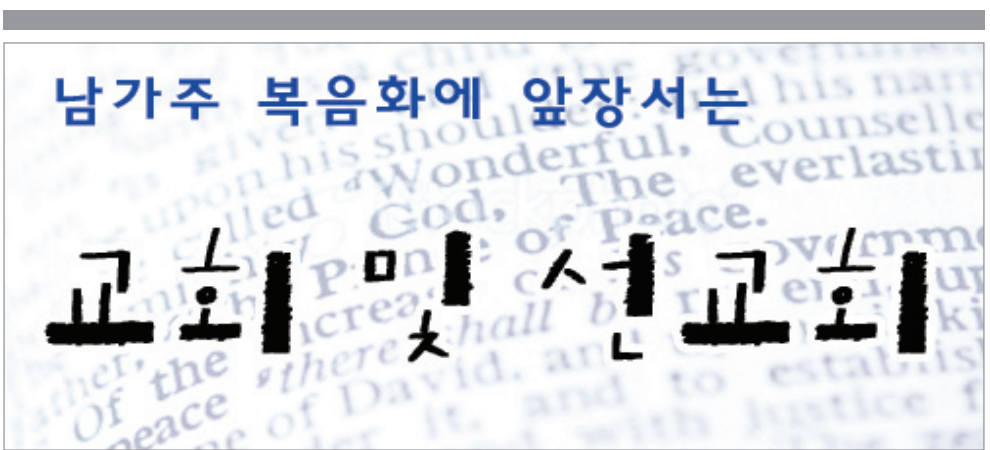
이날 정요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임직식은 이병희 목사(LA카운티 체플린)의 대표기도에 이어 박효우 목사(RCA한인총회장, 남가주교회 수석부회장)가 설교했다.

또한 이석환 목사(야진과보아사션교회)의 임직사 소개에 이어 안수식이 있었다. 축사는 김종태 목사(켄들교회)가, 답사는 이재현 목사가 했으며, 채류석 장로(준비위원

장)의 광고에 이어 배기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배기문 목사는 고려대학교 학사와 미주감신대에서 M.Div.를 마치고 현재 D. Min 과정 중에 있다. 최근 핸디맨 클래스를 열어 강의한 그는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현 목사는 미주총신대와 미주개혁대학원 M.Div를 마치고 현재 Faith Theological Seminary의 박사과정 중에 있다. 이 목사는 찬양사역과 선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임시예배처소 3119W.6th LA, CA 90020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광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6:30 (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성재복음선교회 온 성도가 성경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7기 27기 3기 수료생배출, 현재 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조인수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비켓 투) T. (213) 381-7273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안에서 행함은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성경학교노년노이,만인제사종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문문의 213) 505-7067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 선교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김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5:30(말-토)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1세를 위한 자매, 이만21세를 위한 자매,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신 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민사형통함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로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할로 오전 5:30
점심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화성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공헌과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 받는 이를 섬기라

생명의 전화 제 17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감사에배 드려



지난 28일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생명의 전화 한 통으로 끔찍한 살인사건도 자살도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자신있게 “예스(Yes)”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올해로 17년째 수많은 전화상담 봉사자를 배출해온 박다윗 목사(생명의 전화 원장, 사신 가운데)가 바로 그 주인공.

20여년 전 홀로 도미한 그는, 뜻하지 않게 영주권 문제로 불체자가 되고 그로부터 7년 뒤 가족을 만나기까지 온갖 고생과 역경을 거쳤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나마 같은 언어를 쓰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한 그는 “그때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그는 1988년 6월 1일 ‘네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이민생활에 지쳐있는 한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의 전화를 개통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생명의 전화는 최근 제 17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과정 이수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지난 28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다.

이날 드러진 수료감사에배는 박다윗 목

사(생명의 전화 원장)의 인도로 드러졌으며, 이용덕 목사(엘에이 벨앨장로교회)의 기도 에 이어 정세훈 목사(새한교회)가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상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할 때 공헌의 자세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돌볼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이 가려진 영혼들이 너무 많다.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며 “그들의 눈이 열릴 때까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다윗 목사가 16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다음은 수료생 명단.

권영란 김경숙 김드보라 김병용 김병현 김상홍 김센드라 김순애 김윤숙 김윤진 김켈리 김 크리스틴 김켈리 김홍서 박동우 박병문 박원디 박해경 백정우 송조이 양예숙 오영주 우정은 유클라라 윤혜경 이경식 이다아연 임예숙 전용재 정성기 정수가 정진별리 조매기 조캐티 지길준 지원복 황영옥

문의: 213-480-0691

<2013 블레싱 새언약> 은혜 가운데 마쳐



남가주새언약교회 강양구 목사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남가주 새언약교회(워싱턴 블러버드와 웨스트모어랜드)는 지난 31일 부활절을 맞아 마련한 행사 <2013 블레싱 새언약>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행사는 동교회가 지난 1월 20일(일)부터 3월 30일(토)까지 70일 동안 불신자를 전도해온 <70일 여리고 전도대회>와 병행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강양구 담임목사는 ‘왜 예

수님이어야 할까요?’라는 제목 하에 애니메이션 형식을 도입해 쉽고 재미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풀어냈다. 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며, 친교의 시간을 통해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선포했다.

동교회는 지난 2011년 1월 ‘God First’라는 표어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가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교회를 설립했다.

주소: 1501 W. Washington Blvd, #F, Los Angeles

하나님께서 주신 것 먹으면 건강 문제 없어

살롬장애인선교회, 김갑선 목사 초청 건강세미나 개최



지난 28일 살롬장애인선교회가 김갑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가 3월 28일 오후 6시 30분 김갑선 목사(한의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음식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갑선 목사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먹으면 고장이 없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김 목사는 “문제는 인간들이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돼 있다. 잠을 많이 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마련이고, 적당히 먹고 노동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했다.

이어 “소화가 안될 때는 마늘을 구워 먹으면 좋다. 위산이 많이 나오면 생마를 먹으면 된다. 위가 안 좋다면 평생 무 삶은 물을 마시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십이지장에는 보리차가 제일 좋다. 간에는 간이 좋지만, 먹기 힘들다면 전 세계 어디에나 널려있는 민들레 혹은 엉겅퀴가 좋다”면서 “하나님께서

흔하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온 것 같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약초다. 땅에 붙은 것은 알칼리이고 땅에서 떨어진 것은 산성”이라며 “체장이 건강해야 소화가 잘 된다. 특히 유산균과 청국장이나 소화가 좋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청국장이 약이라고 보면 된다. 이 밖에 대장에 좋은 것은 썩이다”고 했다.

그는 또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이 맵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잘 먹고 잘 자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 김갑선 목사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토양미생물 박사학위를 받았다. M.Div.과정은 부산고신대에서 밟았으며, 도미 후 내추럴테라피를 수학했고, 이어 한의학을 공부해 한의사가 됐다.

한편, 수시만 복미주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의 명강의는 CD 동영상상을 통해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7천여명이 진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단편소설

고마운 왼손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가 다가온다. 왼손에서 전해오는 지근지근 쑤시는 통증을 참아가며 어떻게 다쳤느냐는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스런 표정으로 대답한다. 1시 반쯤 농장에서 일하다가 전기톱으로 다친 것이고 혈압 약 외에 특별히 먹는 약은 없다.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고, 나이도 이름도 주소도 벌써 서너차례 다른 간호사에게 이미 말했노라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전 달되기 바람에 의사의 눈을 뻗혀 쳐다본다.

그는 생긋 웃으며 응급실 담당의사 화이 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X-ray부터 찍자고 한다. 그런 태도쯤은 다반사로 겪는다는 느낌이 붙어오는 웃음인 것 같아 차라리 공손한 태도로 대할 것을 그랬다 싶어진다. 드디어 치료가 시작되나 보다 생각하니 아픈게 조여드는 중심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 통증을 참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늦게나마 메마른 쓴웃음을 짓는다.

응급실에 온 지 두 시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상처에 소독을 한 방울 발라주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작성하며 기다리고 있다. 피는 응고되어 새까맣게 굳어 상처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왼손 엄지만이 다치지 않았다. 엄지는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짧아서 다행히 화를 면했다. 새끼손가락의 상처는 심한 것 같지 않다. 인지와 중지, 검지의 상처가 심각해 보인다. 인지와 검지의 뼈는 상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덜렁거리는 마지막 마디를 겨우 붙여 온 중지가 문제일 게다.

나는 오른 손잡이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든 힘을 더 쓰고 많은 일을 감당해 주었다. 밥을 먹는 것도 오른 손의 몫이다. 글씨를 쓰는 것도 물론 오른손이다. 오른 손 끝마디 좌측에 굳은살이 있는 것을 내심 자랑한 적도 있다. 중지에 굳은살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중학교 영어선생 말을 진리인 양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공이를 볼 때마다 나를 나 되게 한 자랑스러운 흔적이란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런 공이에 비해 글씨체는 별보다. 요즈음은 왼손까지 동원하여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어 왼손도 오른손 못지않은 몫을 담당하고 있다.

손을 바라본다. 남자 손 치고는 작고 예쁜 손이다. 한때는 이 손을 남작다운 거친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도 했다. 나무에 새끼줄을 감아 쳐보기도 하고 태권도장에 다니며 모래를 채운 균용 더플 백을 수없이 두들겨 댔지만 금방 상처가 아물고 옛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다. 정권을 단련하는 가혹한 군 훈련에서 망가지나 했더니 용케도 버텼었다. 어렵고 많은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두드러진 흉터 하나 없이 버티온 것이 항상 잔고라 넉넉한 통장처럼 듽직함이 느껴진다. 아무리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우물 같다고나 할까.

오른손잡이인 나에게 왼손은 보조에 불과했다. 도우미, 조연이나 단역배우의 역할이 전부인 손이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히 제한된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때로 서글픈 일이다. 한 손은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는데 다른 한 손은 그 일에 가려 단순한 노동만을 반복하는 것이다. 악수

를 할 때도, 반갑다고 손을 흔들 때도, 헤어질 때 섭섭한 마음도 오른 손이 하는 일이다. 어쩌다 오른 손을 따라 들러졌을 때도 웬지 어색하고 힘이 없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어렵게 기억해 낸다. 트랙터를 운전할 때는 다르다. 오른손은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 트랙터 바퀴 커버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게 된다. 운전 중 후진을 할 때 고개를 돌려 뒤를 살피면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옆 의자를 잡아 중심을 유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중장비 운전에서도 왼손이 하는 일은 비슷하다. 왼손은 운전을 담당하고 오른손은 중장비에 부착된 삽이나 괄작기를 조정하게 된다.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 분담이 가장 명확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왼손을 바라본다. 오른손에 비해 약해 보이지만 더 예뻐던 손이 중지 끝이 떨어져 겨우 붙어 있다. 마치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어 있는 누에고치 같은 모습이다. 인지를 움직여 보려한다. 검지를 굽혀보려 한다. 쑤시고 아릴뿐이다. 중지는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왼손은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더 이상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고는 못하는 것일 게다. 그동안 조연으로 살면서 맺었던 한을 다 쏟아내려는 듯 심한 아픔을 온몸에 퍼뜨리고 있다.

왼손의 역할에 대해 고마워해 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책감이 왼손가락으로부터 퍼지는 통증과 함께 스민다. 왼손이 힘을 못 쓰는 지금 오른손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오른손이 아니다. 왼손 때문에 오른손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 더 성숙한 모습이였다. 평생 나를 만들기 위해 표 나지 않는 일을 무심히 감당하며 지내왔다. 내 나이를 같이 사는 동안 왼손은 상처만을 품고 말없이 살아온 것이다. 조연의 운명을 성실히 살아온 왼손이었다.

그랬었다. 염소를 잡아 뼈를 토막 내려 할 때 오른 손은 왼손에게 큰 실수를 한 적도 있다. 이번에 다친 중지 두 번째 마디를 친 것이다. 다행히 뼈는 비켜갔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낚시에 물린 고기를 왼손이 잡고 오른손이 낚시바늘을 빼면서 왼손 엄지에 바늘이 깊숙이 박혀 병원까지 간 적도 있다. 못을 박을 때 왼손이 잡아주지 않으면 못을 박을 수 없다. 정성을 다해 못을 잡고 있을 때도 오른손에 쥔 망치가 못 대신, 인지를 두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이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왼손의 가해자는 대부분 오른손이었다. 가해자이면서 계속 힘을 쓰려는 오른손, 나는 더 이상 오른손의 존엄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한다. 왼손이 없는 오른손은 나이 들어 혼자 사는 흠아비 같은 모습일 뿐이다. 아무리 똑바로 걸어도 추레하고, 일을 해보지만 힘 받는 일은 못하고, 씻는다고 해도 여전히 흠아비 냄새가 나는 그런 어정정한 모습이다. 오른손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오른손을 앞세워 나를 살게 하고 있었다. <계속>

글=주경로 작가

죽을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가시는 중입니다. 이제 서른 세 살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 마른 어깨 위에 걸머지기에 너무도 안쓰러운 나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기에 젊은 예수는 그 길을 묵묵히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피었을 때 립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소리는 무자비한 죽음을 부르는 핏빛 아우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벗어 놓은 외투와 가지런히 펼쳐 놓은 종려나무 가지들이 왕궁의 카펫처럼 바닥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면 이 길이 피와 눈물로 뒤범벅된 "비아 돌로로사"(고난의 길)가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당신의 자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에 어금니를 다져 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른 세 살에 유명을 달리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스무 살에 왕위에 올라 세계 정복을 꿈꾸던 당찬 사나이 "알렉산더 대왕"도 전정터에서 서른 세 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전정터는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한 국교회의 부흥 2기를 이끌었던 "시므온 이 용도 목사"도 서른 세 살의 젊은 나이에 강단에서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재능과 열정을 아

끼던 당시 조선 감리교회 초대 총리사였던 양주삼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를 폐결핵에서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도는 이미 자신의 죽을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용도는 그의 바람대로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외치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950년 10월 16일, 프랑스의 "브장송 킨서트 홀"에서 창백한 얼굴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젊은 음악 천재 "디누 리파티"(Dinu Lipatti)가 쓰러진 나이도 서른 세 살입니다. 이미 열 여섯의 어린 나이에 피아노로 세상을 정복해 버린 그는 악성 백혈병에 시달립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고향에 시달리던 그가 무대에 서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디누 리파티는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디누 리파티가 공연장의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열정을 다해 연주했던 마지막 곡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이었습니다. 감미로운 그의 피아노 선율 속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비장한 투혼이 묻어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종려주일의 아침은 항상 그 자리를 가르쳐 줍니다.

LA연합감리교회 김세환 목사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3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2630-A Townsgate Rd. Westlake Village, CA 91361
T.(805) 557-1122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철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654-0191

신현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김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리본당)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6:00(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당: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본당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562-677-7777, F.562-677-7778/ ilovec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 (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은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규합된 영혼구원과 해침, 나눔을 이루는
성경학, 생애와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태평양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치유예배 목요일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주일예배 오전 9:30 금요일치유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허기암 담임목사**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중부 저녁 8:00 본당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빙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3월중 구연산 신제품 출시될 때까지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지 인증에
우수한
알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로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스토리 담은 '인생 마케팅'

'이 음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좋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잠재적 고객에게 말한 호기로운 젊은이들이 있다. 이 젊은이들은 회사를 다니며 왜 몸에 좋은 드링크가 없을까 고민하다 직접 과일 스무디를 개발했다. 창업을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중대기로에서 이들은 시음회를 통해 결정을 대중의 손에 맡겼다. 결과는 '회사를 그만둘 것'. 영국의 과일 스무디 브랜드 '이노센트 드링크'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 이야기는 스토리를 담은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케팅의 숨은 힘에 대해 이야기한 책 '스토리의 마법(21세기북스)'이 출간됐다. 마케팅의 재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 책은 처음 마케팅을 접하는 신입사원 유진의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렵사리 대기업 S상사에 들어간 유진은 회사에 들어가지만 하면 장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스토리 담은 '인생 마케팅'

스토리의 마법
정선혜, 서영우 | 21세기북스 | 304쪽

밋밋 미래가 펼쳐 있을 거란 기대를 갖지만, 생각과 달리 회사 생활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학력과 경력을 꼬투리 삼아 유진을 무시하는 팀장,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한 회사 상황,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즈니스 용어까지 유진은 낱알이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해법을 찾아 나선 길에 유진은 두 명의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마케팅

의 귀재 졸타 할아버지와 컨설팅 전문가이자 스토리의 마법사 스미스 박사다. 유진은 그 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바로 마케팅이며 우리 일상이 바로 마케팅의 공간'이라는 진리를 깨닫는다.

유진이 겪는 상황을 좇다보면 마케팅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이론과

실제를 익힐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토리의 사례를 보다 보면 저자가 말하는 마케팅과 스토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길거리에는 자신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상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끌리는 사람과 팔리는 물건은 따로 있다. 바로 그 '끌리는' 지점이 이 책에서 말하는 마케팅과 스토리의 핵심이다. 스토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파트1 '마케팅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에서는 졸타 할아버지의 세미나로 포괄적인 마케팅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마케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동이 아닌 인생에서의 가치 창출과 교환 개념이라는 점을 다룬다.

파트2 '끌리는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다'에서는 우리 주변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적인 측면을 다룬다. 마트, 광고, 소셜 네트워크 등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도 설명한다.

지금 시대에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다른 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나만의 반짝이는 보석 같은 스토리아말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그 속에 진심을 담아 접근한다면, 나의 가치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김은애 기자

진재혁 목사 "기적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하..."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목사가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쓴 <기적을 살다(Miracle, Now·요단)>를 펴냈다.

진 목사는 "우리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큰 기적을 꿈꾸지만,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귀로만 듣던 말씀이 마음에 들리고 나아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적이라 말하는 진재혁 목사에게 더 이상 기적은 불가능하거나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용서



책 <기적을 살다>...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

기적을 살다(Miracle Now)
진재혁 | 요단 | 218쪽

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책에서 진 목사는 사랑(빌 2:6-8)과 십자가(롬 5:8), 믿음(고후 5:7)에 서부터 말씀과 기도, 교제와 축복, 순

종과 변화, 세움과 부활까지 총 13가지 주제로 기적을 이야기한다. 그는 '고난'도 기적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공기를 이겨낸 과일이 단단하고 맛도 좋다. 고난을 모르고 산 사람은 웬

지 설익은 땀방 같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지 않을 줄 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기쁘게 여기라(약 1:2)'고 말씀하신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우

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일부러 내버려 두면서 그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 해야 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면, 그것이 고난을 통한 기적 아니겠는가. "고난은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진 목사는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여, 담대하게 '고난의 기적'을 체험하자"고 권한다.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그 기적을 살자!" 초신자 또는 불신자들에게도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책이다. 이대웅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중회장 황수원목사, 중장 강부용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부활의 은총과 축복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요, 둘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요, 셋째는 죽으셨던 그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뼈도 사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허접한 쓰레기 같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구원과 영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히 인류에

겐 은총의 사건이요, 생명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 등은 그 어디에도 부활의 사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인도를 비롯한 많은 불교국가들에서 한동안 떠들썩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석가모니의 뼈들은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졌고 수백 수천만의 인도 사람들이 대단한 경의를 표하며 시가행진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감격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든지, 죽은 뼈가 발견되었다면 그 날이 바로 기독교의 장례식 날이요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요 산 자를 믿는 종교요,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한 천사들의 말은 우리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여 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신 주님은(롬4:25)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개런티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이 거룩하고 경건한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요즘의 십자가는 많이 화려해 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다이아몬드 십자가도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찬양으로 가득찬 날입니다. 부활절은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토요일의 안식일에서 일요일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대 축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자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사 가장 중요한 주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목의 대상은 바로 그분

한 역사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세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다.” 역사의 날짜 계산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올해를 2013년이라고 하는 날짜 계산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혐오적인 것으로 취급되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철이 든다는 것은...

만, 다시 살펴보면 늙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인생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어떤 이도 자신에게 찾아온 늙음과 백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피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잠16:31)이라 말씀하고 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잠언20:29)라고 말씀한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아름답고, 나이가 들어서는 백발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발의 의미가 무엇이기 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인가? 백발이란 수많은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혜를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것은 그 지혜 때문이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봄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가 있고, 여름과 같이 왕성한 푸르름을 발휘하는 시기가 있다. 또한 가을과 같이 인생의 원숙함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고, 겨울과 같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사계절 중 그 어느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다는 것이다.

봄과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천진난만한과 사랑스러움이 아름답고, 여름과 같은 청년의 시절에는 힘있게 미

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가을과 같은 중년의 시기에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기에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철이 든다는 말이 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어느 계절에 와 있는 지를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감하지 여기며 그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인생의 철이 든 자이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으며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없을 때 그는 결코 철이 든 자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계절 속에서 아름다움의 능력을 보여주는 철든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하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살게 된다. 이를 알 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이 든다는 의미가 아닐까.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1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여호수아 미국대륙횡단선교회

본 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대한민국 2세들에게 여름방학(30일) 겨울방학(10일) 동안 광활한 미 대륙을 횡.종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신비로운 자연과 유명 관광지, 유적지, 선교지를 답사하고 동부 IVY 리그 대학들을 탐방하여 큰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하며 영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랑, 섬김, 협력, 리더십을 키우며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비 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본 선교회에 뜻을 같이하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25국립공원, 30개주, 40명소, 1만 마일, 5개 IVY리그 대학

대표 : 최영봉 목사

1134 S Western Ave #A-5 LA CA 90006
Tel. 213-271-5034



LA-> 요세미티NP-> 타호호수-> 솔렉시티(소금호수)-> 옐로스톤NP-> 러쉬모어NM(대통령 큰바위얼굴) 시카고(시어저타워,오대호)-> 클리블랜드->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턴(하버드대학교,MIT 공과대학교)-> 뉴 헤이븐(예일대학교)-> 뉴욕(맨하탄 자유여신상,엠폴리어빌딩,NYU대학교,콜롬비아대학교)-> 워싱턴 D.C (백악관,국회의사당)->ST. Louis-> 덴버(로키마운틴NP,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파이크스 피크, 로얄고지 다리)->블랙캐년 NP->아쉬NP-> 케넬랜드 NP->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 파월호수NP(8시간 유람선)->그랜드 캐년 NP->BRYCE캐년 NP-> Zion 캐년 NP->라스베가스-> LA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여섯째 지팡이



이 학 진 장로
사랑의빛선교교회

지난 주의 모세오경에 이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성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역사서란, 역사서 17권(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12권)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 13권이 있습니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앞에서 소개한 모세오경에서 시작됩니다.

연대적으로, 첫째, 창조시대 (창세기 1-11장)의 인류 일반 역사 둘째, 족장시대(창세기 12-50장) 이스라엘 국사의 시작 셋째, 모세시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넷째, 사사시대 (여호

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룻기>), 가나안 정복시대 다섯째, 왕정시대(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섯째, 포로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의 이중 괄호 안에 표기한 성경들,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시간 안에 들어 있고, 룻기는 사사기의 시간 안에 있으며, 에스더는 에스라의 시간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알고 읽어야 성경이 쉽게 읽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는 단일 왕국시대와 분열 왕국시대로 나뉘는데 단일 왕국시대는 사무엘상 10-31장(사무엘, 사울), 사무엘하(다윗), 열왕기상 1-11장, 역대상-역대하 1-9장(솔로몬)이고 분열 왕국시대는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역대하 10-36장입니다.

분열왕국을 끝어가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남 유다의 역사를 이입하는 흐름이며 역대상 하와 포로시대의 세 권의 성경은 남 유다의 신적역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기록한 기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특정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하나님의 약속-성취의 패턴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가장 중요한 관점에다 놓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립적으로 기술한 책들이 아니라 언약사임을, 다시 말해 선지자적 성격의 글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 신명기적 역사라 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처리하신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그 관점이 행함보다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복음(요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이 주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된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계사가 종적인 관점에서 부연됩니다(참고, 스 1:1 고레스).

참고로,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정착한 가나안 지역(오늘날의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에는 가나안 국가들 이외에, 우선 이스라엘 남쪽에 애굽이 오랫동안(애굽의 시작 BC. 4000년경으로 추정/ AD. 30년 로마의 속주가 되므로 멸망) 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북쪽에 수리아(아람) 그리고 인류의 고대 문명을 이룬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왕국에 기원을 둔 앗수르가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창 11:1-26의 바벨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앗수르(북쪽지역), 바벨론, 갈대아(남쪽지역, 창 11:27-32)로 불리우며, 때로는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분열되기도 하고 혹은 구 바벨론이라는 통일왕국을 이루어 오다가 BC. 1200년경부터 앗수르가 약 600년 동안 대제국을 이루고 BC. 721년(남조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 재위)에 북 이스라엘

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갈대아 왕조가 이 앗수르를 멸망시키고 신 바벨론(오늘날의 이라크)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의 왕이 바로 느브갓네살이며(단 2장, 다니엘의 꿈 해석) BC. 586년에 남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이 신 바벨론 왕국은 90년도 못되어(단 5장, 다니엘과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메대(메디아제국의 후예는 현대의 쿠르드 족속)에 의하여 멸망 당하고(단 6장, 다니오 왕), 메대왕국은 바사왕국의 고레스 왕(스 1:1)에 의하여 병합되어 메대바사 제국(메디아 제국과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합성어, 오늘날의 이란)이 되었으며, 이 메대바사 왕국은 그 일대(바벨론, 베니게, 팔레스타인 등)는 물론 애굽까지 짓밟고 그 때까지의 세계 역사상 유래를 볼 수 없는 강국이 되어 페르시아 왕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BC. 333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이우스 전투에서 패퇴시킨 헬라(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새로운 왕국이 건설됩니다. 이어 나타난 로마제국(BC. 509년 공화정 설립/ AD. 565년 멸망)이 약 1000년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IT칼럼

목사님 교회에서는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윤승준 남가주헬로십교회 안수집사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재미있는 영화 중에 <부시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 하나로 시작되는 스토리에는 많은 웃음 속에 깊은 해학이 담겨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무심코 던진 이 콜라병은 영화 속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곡식을 쌓는 절구가 되기도 하고 반죽을 미는 방망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용한 도구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급기야 싸움까지 나게 되자 족장이 그 콜라병의 주인을 찾아 주겠다며 문명사회에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문명을 접한 그 추장에게 보여지는 것은 현실이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본 것을 현실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천년을 지나도록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상도 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니 길게 잡는다고 해도 50년간 인류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년을 두고 상상만 해 온 일들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필자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것은 1981년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4학년에 복학을 하고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교수님 방에서 커버로 덮혀있는 컴퓨터를 처음 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세계 교수님은 "미국에서 기증 받은 것인데 아직 시간이 없어 시도도 못 해봤다.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한번 연구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호기심이 강한 탓에 그날부터 컴퓨터와의 씨름은 계속되었고 단 한권의 책도 없는 상황 가운데 마침내 3달 만에 구구단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애플의 컴퓨터를 복제한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행히 조금 먼저 시작한 덕에 어린 나이에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는 이제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했고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지 아무도 모르는 통제불능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능의 스마트폰이 발

표되고 그 발표되는 기능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기계들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이 문화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교회와 믿는 이들은 늘 뒤만 쫓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있어 잘 아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교회 특유의 정서로 인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기독교 문화 창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악과 대적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복음증거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환경은 한국과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이 요금 체계입니다. 한국의 경우 요금 부담이 송신자에게 100%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체계는 '문자'라는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요금부담 외

에도 영어에 익숙치 못한 이들이 영어 의사전달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비롯한 라인 등 한국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SNS들이 탄생했습니다.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무료 통화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단체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친구가 진드기에 물렸습니니다. 고열과 통증이 여러 날 지속되어 병원에 가보니 거액의 수술비를 요구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바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이 사실을 알려왔고 이에 우리교회 중보기도팀들은 즉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실시간으로, 그것도 공짜로 기도 제목을 주고 받는... 이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나마 여러 가지를 잘 이용하려 노력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주 한인교회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음악 사역자가 있듯이 컴퓨터 및 뉴미디어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또 보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 목회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윤승준 집사는 누구?

컴퓨터 및 IT 기기 전문가 윤승준 안수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세계 최초로 찬송가 자동반주기를 제작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그간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 교회에 컴퓨터 및 스마트폰 도입을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회 조명을 비롯해 앱 제어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Life



이스라엘 탐방



므깃도 교도소에서 발견된 3세기 교회의 발굴 현장



므깃도 교회의 바닥 모자이크



므깃도 교회의 헌신적인 믿음의 여인 아 투스를 기념한 모자이크 내용

므깃도 교회

이스라엘 북부서 가장 오래된 교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에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열두 제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가자 막달라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을 때에 조용히 섬겼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인 므깃도 교도소에서 발견된 고대 교회에도 그런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1990년대 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므깃도 교도소는 시설 확장을 위한 공사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2005년 시설 확장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년 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라밀로 라질로(Ramilio Razilo)는 삼으로 잡석을 걷어내던 중에 고대 유적터를 발견하였다. 고대 유적이 발견됨으로 인해 건축 공사는 중단되었고,

교도소 당국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에 즉시 알렸다. 그래서 간단한 발굴 조사를 위하여 요탐 테퍼(Yotam Tepper)가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요탐 테퍼(Yotam Tepper)는 곧 현장에 도착하여 발굴에 임하였고, 2007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터가 므깃도 잠몬(Zalmon) 교도소에서 발견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므깃도 교회는 나사렛 언덕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므깃도 잠몬 교도소에서 발견된 교회 유적은 지금까지 발견된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므깃도 교회의 건축 연대는 주후 230년경으로 3세기 초에 해당된다. 이것은 콘스탄틴이 로마를 통치하기 이전, 곧 기독교를 인정하기 이전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오래된 고대 교회의 유적이다.

므깃도 교회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화려하게 만들어진 바닥 모자이크이다. 모자이크가 새겨진 내용으로 보아 모자이크가 발견된 방의 용도가 예배실이 틀림없다. 성찬 테이블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각각의 모자이크들이 만들어졌다. 모자이크는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찬 테이블을 중심으로 전면과

후면(남쪽과 북쪽)의 모자이크는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남쪽 모자이크의 두 개 비문은 서로 마주보게 기록되었다. 북쪽 모자이크는 므깃도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화려한 사각형과 마름모 형태로 팔각형을 이루고 있다. 팔각형 안에는 원형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모자이크를 만들었다.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상징이었다.

성찬 테이블의 북쪽 모자이크에는 네 여인들을 기념하는 이름이 기록되었다: 프리밀라(Primilla), 키리아카(Cyriaca), 도로테아(Dorothea), 그리고 크레스테(Chreste)이다. 이 여인들은 므깃도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인 여인들이었다. 북쪽 모자이크의 두 번째 기록 오른쪽에는 이 모자이크를 만드는 데 비용을 제공한 사람과 모자이크를 만든 전문인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포르피리우스’라 불리는 가이아누스는 백부장으로 우리의 형제이다. 그는 헌신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교회의 바닥을) 포장하였다. 브루티우스는 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 내용으로 보아 므깃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로마 군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므깃도 교회의 예배

실을 기증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므깃도 교회의 성도들은 백부장을 가리켜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비문에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God Jesus Christ)’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에서 이 두 단어의 처음과 끝 글자는 생략되었으며 두 단어 위에 직선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거룩한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일반적인 표기법이었다. 세 번째 기록은 이곳이 로마 군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이곳의 중앙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아퀼투스라는 이름의 여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퀼투스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 테이블을 드리나이다(오른쪽 모자이크).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은 모든 곳을 포함하여 므깃도 교회에서 발

견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인 발견이다.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는 교도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만을 수집, 사진으로 남긴 후 므깃도 교회 유적지를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후에 발굴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면, 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므깃도 교회의 유적지를 다시 발굴할 것이다. 그러면 므깃도 교회를 통하여 초기 교회의 예배와 건축 양식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글=이주섭 목사
- 현)두루Tentmaker 고문
- 현)조지아 크리스찬대학교 역사 지리학 교수
- 현)성서지리연구원 원장
- 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불 ■1박스(3개월분) 360불

세종바이오텍
Biotech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신제품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진짜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at El Monte

<p>EQUUS SIGNATURE 2013</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499 Lease per month plus tax.</p>	<p>SONATA GLS 2013</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109 Lease per month plus tax.</p>	<p>ELANTRA GLS 2013</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3,199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99 Lease per month plus tax.</p>	<p>ACCENT GLS MT 2013</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89 Lease per month plus tax.</p>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4월10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888.409.3002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건강 칼럼

마더 힐링



모처럼 햇살 좋은 날, 가까운 공원에 나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서너 살 쯤으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봄 햇살을 받으며 공원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입가엔 미소를 띠고 힘차게 걸었습니다. 행복한 엄마와 아이의 봄나들이 풍경을 한참동안 바라보며 제 마음도 흐뭇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약간의 불안도 없이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며 함께 있는 장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엄마가 나를 지켜 줄거야.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아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합니다.

엄마와의 이런 안정적인 관계는 이후 세상과의 관계맺기에서 언제나 신뢰와 자신감이 충만한, 안정감 있는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을 향해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엄마의 젖을 먹었으며, 엄마의 돌봄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모성애와 본능적인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의 다친 마음까지도 즉시 치유해주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

처도 엄마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살해한 엄마의 사건... 그 엄마는 우울증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과 다 두고 나간 뒤 모텔에서 세 아이를 질식사시키고 따라 죽으려고 했던 엄마... 너무 충격적이어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중증의 심리적 병증은 이렇게 모성애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이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거두는 것은, 가장 참혹

한 범죄이며 가장 사악한 죄악입니다. 혹시 ‘여자’는 그럴 수 있어도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엄마가 되는 순간, 그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이 굶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것을 마련해 올 수 있고,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공포도 잊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신의 마음이 더 아프고, 자식이 슬프면 자신이 더 슬퍼지는 것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 어머니라는 말은 곧 ‘힐링’을 뜻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의미가 힐링이 되려면 엄마 자신의 치유가 시급합니다. 자신의 상처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종종 깊은 심리적 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엄마들은, 그 아이들보다 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치유자’가 되어 달라고. 그 전에 엄마 자신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라고.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치유자’입니다. 엄마인 당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힐링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더 힐링’, 이것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아하! 행복한 가정이 보인다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니? 암이니?” “그게, 저...” “어서 얘기해봐라!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래요.”

“뭐? 암이라고?” “네, 흑흑...”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인가, 숨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암 환자를 주로 대하는 어느 대학병원 황 교수에게 어느날 환자 A씨가 찾아와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바른 대로 병세를 알려 달라”고 사정했다. 그 말을 믿은 황교수가 “최소합니다. 선생님은 암 말기입니다!”라고 통보하자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몇 일 만에 급사했다. 이래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평소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못

마땅하게 생각했던 외과의사 B씨는 황 교수로부터 자기가 암이라는 통보를 받자마자 기독교에 입문해 비교적 평안한 임종을 맞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죽을 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이 대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즈음의 환자들은 대체로 심신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것을 알려 줌으로 인해 더욱 충격을 받게 되고 삶의 의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즈음의 환자들은 대체로 심신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것을 알려 줌으로 인해 더욱 충격을 받게 되고 삶의 의지를 잃게 되어 결국 죽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를 쓸데없이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며,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고, 환자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암 통보를 받은 후 죽음을 공포에 괴로워하다 생을 마치는 불행한 경우가 많다. 의사 입장에서 가족이나 환자를 대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함구 효과(mum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나쁜 소식에 대해서 서로 알려려고 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좋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함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병원에서 불치병(terminal ill)에 걸린 환자에게 불치병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죽음을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환자의 병에 대

한 진실을 말해 주었다고 해서 환자의 삶에 대한 희망이 모조리 박탈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사실상 환자의 상황을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의사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가족이 환자에게 미리 말해 버리면 환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의사도 하지 않은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말을 가족이 환자에게 했을 때 환자 자신은 마치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결국 환자는 의사에게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의사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물어 볼 때 알려 주어야 한다. 환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가 궁금하여 질문할 때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불치병임을 말하지 말아야 할 환자는 원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때는 치료과정을 잘 설명해서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에게는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의 사랑은 시한부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 가족이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환자 가족이 의사로부터 이 사실을 먼저 통보 받고 가족 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를 잘 수용해야 하며 그 후에 환자에게 알려야 될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환자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에 절대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환자 가족의 감정이 통제되기 전에는 알려서는 안된다. 한국기정상담연구소 전요섭 목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Korea Be Inspired

30주년 기념, 아주투어가 준비한 신년맞이 봄맞이 모국 힐링투어!
모국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특별한 내고향 향토음식, 구수하고 해박한 지식의 가이드 3명자를 모두 갖춘 구성입니다. 어릴적 그 모습! 그 옛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내 고향으로의 멋지고 맛있는 여행길로 초대합니다. 아주투어의 모국 힐링투어로 이만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문경제재/단양팔경

추억여행 4일 \$399

멋자랑! 맛자랑! 출발 ▶ 매주 화

문경드라마 세트장/옛길 박물관

문경새재 추억속으로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선병국 가옥, 정이품송 소나무, 도담삼봉, 원주 한지테마파크, 이천 도자기마을, 수원화성, 화성행궁

서해투어 조인 가능

진해벚꽃 축제여행 3일 \$199

30주년 특가! \$249

단 1회 출발 ▶ 4/2

수령 80년이 넘는 벚나무와 38만여 그루의 벚나무

진해 벚꽃 관광

남원 광한루, 중원로타리, 여좌천, 해군기지사령부

동해투어 조인 가능




관광외길 30년! 아주관광이 새로운 30년을 아주투어로 시작합니다!

US이주투어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디자인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인터뷰] '나는가수다 2' 가수왕 소향

소향 "지경이 넓어진 것이지, 노선 바뀐 건 아니에요"



소향은 '나가수'에 출연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2012년은 소향에게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다. 사람들은 소향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음색에 매료됐다. MBC '나는가수다'(나가수)에서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단숨에 '가수왕'을 차지했고, 한 해 최고의 가수를 가려내는 '나가수2-2012 가왕전'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소향은 CCM 가수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힌다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나가수'에 도전했다. 대중가요도 그녀의 내면에서는 'CCM화'됐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향은 크로스오버(crossover)의 성공이 부각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었던 것뿐이지, 성공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죽을 만큼 아프고 괴로웠던 때도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을 보여줬으니 만족합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시겠죠. 변함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임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진 것 뿐이지,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CCM과 대중가요의 크로스오버를 생각하는 찬양사역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악한 것들도 가만히 놔두지도 않죠. 세상에 가서도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크로스오버의 성공이 목적이어서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

지난해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소향을, 송도 웨다톤호텔에서 만나 '나가수' 출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 물었다.

- '나가수' 출연으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CCM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가장 큰 결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콘서트 사연을 올리는 게시판에서, 정말 가운데 있다가 제 공연을 보고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분의 글을 봤어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 '나가수' 에서 아쉬운 점도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경합이라서 제 음악 스타일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죠. 음악도 극적으로 편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잔잔한 음악과 빠른 음악도 해보고 싶었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모습

원하시는 것만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크로스오버의 성공이 목적이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해요."

-평소 목상하는 성구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모든 겹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늘 생각해요.

저희 팀이 포스잡아요. '나가수'에 출연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팀원들이 큰 힘이 됐고, 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진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래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해의 진출을 위한 기반 확보와 앨범활동에 힘쓰려고 해요. 그리고 틈틈이 소설도 써왔는데 곧 출간하려고 합니다."

신태진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4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앗! 집전화요금미 미쳤다!

비싼 집전화
거침없이
내려가는
요금

미국 무제한 통화

\$9.99

/월

- 미국 로컬, 장거리 무제한 통화
- 한국 유선 전화 매월 60분 무료

대박 찬스

지금 바꾸면 2개월 무료!

행사기간: 2013년 4월 15일까지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화 가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안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iTalkBB [30일 환불 보장] 품질의 자신!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0 PS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귀하를
푸엔테힐스 현대로
초대합니다.”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2013 EQUUS Signature

\$539

+TAX (STK. 066759)

48Month lease /12k mile/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5,359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12k mile/ T.D.O 2,999

MSRP \$22,770

PH HYUNDAI D/C \$1405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5

+TAX (STK. 693375)



36Month lease /12k mile/ T.D.O 3,999

MSRP \$19,350

PH HYUNDAI D/C \$945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15

+TAX (STK. 729686)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LET'S GO!
SALES EVENT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